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41호> 2019년 10월 발행

「What`s Up, OITA!」는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있는 여러분들께,
일본 오이타현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오이타현 소식>

2019 럭비 월드컵 일본대회 개막

2019 럭비 월드컵 일본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대회 사상 최초로 3연패를 노리는 뉴질랜드 대표(올 블랙스)가 지난 24일, 오이타에서 열리는 시합을 위해 오이타를 방문했습니다. 선수들은 공항에 도착하자 마중나온 팬들에게 사인과 악수를 해주며 매너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오이타에서 펼치는 감동을 경기장과 팬존에서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분고오노시 소식>

What's up, OITA! 한국어판 제32호(2018.11)부터 현내 각 시정촌의 소식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우사시에 이어 이번 호는 분고오노시로부터 온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분고오노시내 중학교와 부산 기장군 장안 중학교의 '중학교 국제교류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분고오노시내 중학생 대상의 한국 홈스테이 교류로 1994년에 시작되어 양국을 왕래하며 20년이상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 27~29일(방한), 8월 10일~12일(방일) 일정으로 양국 학생들이 서로 짝이 되어 홈스테이 교류를 하며 서로의 문화를 느끼고 국경을 뛰어넘는 우정을 쌓았습니다. 첫 해외, 처음 보는 풍경, 처음 생긴 외국인 친구 등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영어와 일본어, 한국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나누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분고오노시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에게 안내한 관광 명소 중 가장 많이 찾아간 곳이 오가타정에 있는 하라지리 폭포입니다. 폭 120m, 높이 20m를 자랑하는 하라지리 폭포는 일본 폭포 100선에도 선정되었습니다. 폭포 위에 있는 길을 지나면서 발밑으로 떨어지는 물을 가까이서 볼 수 있으며 폭포 정면에는 출렁다리가 놓여 있어 폭포 주변을 한바퀴 둘러볼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어른을 대상으로하는 홈스테이 교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교류 사업 역시 20년 이상 격년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분고오노시 시민들이 기장군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번엔 처음으로 참가하는 분들이 많아 또 어떤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됩니다.

<분고오노시 마을만들기추진과>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41호> 2019년 10월 발행

오이타 100% 즐기기! 2019 럭비 월드컵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2019 럭비 월드컵이 지난 20일, 일본과 러시아의 경기를 시작으로 대회의 막을 열었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축구 월드컵, 하계 올림픽과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 행사로 꼽히는 럭비 월드컵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일본에서 개최되어 오이타를 포함한 12개 지역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오이타에서는 조별리그 3경기와 준준결승전 2경기가 열릴 예정으로 출전 팀의 국기와 럭비 포스터 등이 오이타역 주변, 상점가 등 시내 곳곳에 걸려있어 축제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경기가 열리는 지역에 설치되는 공식 팬존은 퍼블릭뷰잉을 통해 럭비를 관전하며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다도와 서도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일본 문화 체험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긴 테이블, 소파, 벤치석이 놓여있어 편하게 관전할 수 있으며, 온천현 오이타를 PR하기 위한 족욕탕도 있어 색다른 곳에서 온천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밖에 설치된 음식 부스에서는 오이타의 명물인 토리텐, 카라아게, 히타 야키소바와 지역 소주 등을 판매하고 있어 맛있는 음식과 함께 럭비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개막전 당일에는 비가 내리는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대성황을 이루면서 럭비 팬들의 응원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럭비에 대한 규칙이나 경기 방법을 잘 모르더라도 팬존에서 럭비팬들과 관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밌는 경험이 됩니다.

한편, 오이타시가 설치한 축제의 광장에서는 퍼블릭뷰잉은 물론 게스트를 초대해 진행하는 토크쇼와 전통예능 공연 등 풍성한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경기가 없는 날이면 영화를 상영하고 오이타 기념품 및 오이타에서 경기를 펼치는 출전 팀 국가의 음식을 판매하는 부스도 있어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또 오이타시 미술관, 현립 미술관 등을 돌며 스탬프를 찍어오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스탬프랠리 이벤트도 열리고 있어 어린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럭비 월드컵이 개막하자 길에서 마주치는 외국인들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길거리에도 영어로된 관광안내 문구가 추가되고 영업시간을 새벽 늦게까지 연장하는 가게들도 등장했습니다. 또 시내 중심가의 일루미네이션도 월드컵 기간에 맞춰 한 계절 앞서 시작되어 밤을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은 럭비에 대한 관심이 높지않기에 이런 모습이 더욱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4년에 한 번이 아니다, 일생에 단 한 번이다'라는 공식 캐치 프레이즈대로 뜨거운 럭비 열기에 물들어 여느 때 보다 더욱 활기차있는 오이타의 모습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